

석탄증산투쟁의 불길높이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비결은 굴진선행을 철칙으로 틀어쥐는데 있다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심정으로 생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루생산실적은 놀라운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탄광의 전반적정황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배이상의 석탄생산실적이 기록되고 석탄생산이 비약적 궤도에 확고히 올라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승적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리없이 쫓아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증산투쟁이 세차게 벌어지는 탄광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말씀하시었다.

이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석탄생산에 대한 당정책이 일관하고 꾸준히 관철되어 생산전망이 확고히 담보

되고있는 탄광에서 높은 생산성과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은 응당한 귀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실지 탄광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이 확고히 선행되어 예비채탄장들이 넉넉히 확보되어있으며 현재 탄광안의 모든 채탄중대에서는 두개의 채탄장을 운영하고있다.

결과 이의 채탄중대에서나 한쪽 채탄장에서 전진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붐피를 하면서 공정계획에 반영된대로 생산을 쫓아내기때문에 탄광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화력발전소에서의 석탄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특히 불리한 기상수문조건으로 하여 지난해에도 그러하였지만 올해에는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어야 한다.

일군들이 긴장한 증산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투를 보장하고 보자는 식으로 굴진을 뒤연고

미루어놓거나 굴진력량을 동원 나무운반과 채탄작업에 한두명 쏘아야 하고 돌았다면 생산을 오늘처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가 없었으리었다.

그뿐만 한 계기가 있었다. 피오배전 일이었다. 새롭게 추가된 증산목표수행을 놓고 방도를 모색하던 일군들은 당장 발등을 떨어뜨려 불부러 고고 보자는 식으로 굴진력량을 때려 석탄생산에 돌리었다. 물론 증산목표는 수행되었고 평가도 있었다. 당장은 그 후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런 일이 한번두번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자 석탄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예비채탄장이 미처 마련되지 못하여 반복 채굴을 진행하는 개소들이 늘어났으며 그만큼 생산된 석탄의 질도 떨어졌다.

일군들은 뒤늦게나마 굴진을 석탄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대한 당정책을 철칙으로 틀어쥐지 못한 자신들의 일본색을 심각히 돌이켜보았고 새롭게 분발하라고 보자는 식으로 일군들의 사교한

점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굴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수 없는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졌다.

탄광의 일군들은 증산목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굴진에 더 큰 힘을 넣었다.

한대의 탄차라도 굴진소대에 더 넣어주었고 갱들에서 생산성과가 기록되면 그 성과의 담보를 마련한 굴진소대장, 굴진공들을 먼저 평가해주었다.

3개 김령민고속도굴진소대, 10개 로창고속도굴진소대, 10개 김령민고속도굴진소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굴진소대들이 탄광에 적지 않은데도 그들을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일군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것들이었다.

현재 탄광에서 굴진공들의 구멍당 천공속도돌기기준은 대단히 높다.

지금 탄광의 고속도굴진, 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소대간, 굴진공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며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벌이고있다.

후히 탄광에서 버려져 나온 땅을 보면 굴진실적을 알수 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탄광에서 하루평균 100대 혹은 200대의 버려진 땅을 더 많이 보냈다면 오늘날에는 배가의 탄차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지하막장이 전진하고 화력발전소들에 집중은 석탄 생산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는 자랑한 현실이다.

일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석탄공업에서 굴진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시면서 탄광들에서는 굴진을 석탄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굳기있게 벌려주는 보장이 화력발전소를 위한 지난해 석탄증산투쟁에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올해투쟁에서도 크게 은을 올리고있다.

그렇다. 채취공업부문에서 굴진선행은 철칙이다.

본사기자 강병철

조양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림,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최근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조양란탄광에서 당정책의 요구대로 갱막장들에 V형외동발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있다.

나중에 비해 견고한 외동발을 갱도연구회와 채탄작업에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동발나무문제도 풀고 석탄생산을 높이고 있는것은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탄광에서 동발나무가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이는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립장에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광일군들의 사업에서

방도를 찾아내야 할 임무가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그러면 탄광 일군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떤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

외동발을 나무동발에 비해 우월한 측면이 많지만 대신 원가는 상대적으로 높다.

바로 이 문제가 탄광들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현시기도 외동발리용률이 높지 못한 리유의 하나이다.

이 탄광일군들이 잘한 점은 외동발을 자체로 생산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는데 있다.

우선 탄광에서는 갱도연구회에 일부 리용된 나무동발대신 자체로 생산한 외동발을 리용하여 많은 동발나무예비를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연구회에 리용되는 나무동발은 몇달후 혹은 그전에 전부 교체하여야 하지만 외동발을 리용하면 여러해동안 갱도유지에 리용할수 있기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채탄장들에 들어간 나무 동시공한 3-4개 동발 구간사이에 하나씩 설치된 외동발을 붙수 있다. 얼핏 보면 이렇

사업에서

게 시공을 하는것이 얼마만큼 실리있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은 결코 작다고 할수 없다. 나무동발이 못쓰게 되는것은 동발의 어느 한 부분에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기때문이다. 특히 채탄장을 붐피하면서 퇴각할 때 동발이 힘을 받아 부러져 회수 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채탄장들에 이 탄광에서처럼 외동발을 나무동발사공구간 사사이에 넣어주면 동발회수리용률을 대폭 높일수 있다. 결국 외동발 하나로 열, 백대의 나무동발예비를 찾아낸셈이다.

이 탄광의 탄부들은 새해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외동발을 자체로 만들어 더 요구되는 나무동발의 수요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사관철하겠다는 립장에서 서서장조작을 사색하고 실리를 따져가면서 일해나갈 때 성과가 기록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이 증산의 열풍으로 끓어번지는 나라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 2.8직동청년탄광의 9개 채탄3중대 막장이다.

과대작업이 시작되지는 얼마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채탄막장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석탄을 가득 실은 탄차들을 달고 전차들이 연방 벨트만큼 이수송선을 향해 내달린다.

채탄장을 가까이 하니 《절컹, 절컹...》 하는 동음이 가락맞게 들려온다. 이질에는 들어볼수 없었던 채탄장의 동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한 갱장은 지난해에 모든 채탄장들에 도입한 판성식적재운반설비의 동음이라

고 공지에 넘쳐 말한다. 정초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이 설비를 도입한데 있다고 한다.

작업현장에 들어서니 수십m 구간을 차지한 운반설비의 거동 모습이 안겨온다. 설비의 효율에 대해 들을 때에는 덩지가 어찌

고 공지에 넘쳐 말한다. 정초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이 설비를 도입한데 있다고 한다.

작업현장에 들어서니 수십m 구간을 차지한 운반설비의 거동 모습이 안겨온다. 설비의 효율에 대해 들을 때에는 덩지가 어찌

석탄을 동시에 뽑아내는것이 이 설비의 우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만큼 로력이 절약된다. 전진과 붐피, 석탄운반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5명의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사출콘베어에서 2중으로 놓여졌던 조구가 한줄로 놓였으니 이것도 절반은 절약된것이다.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곳 채탄공들의 투쟁에 우리가 막장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벌써 다녔던 전차가 미끄러져나간다. 중대장이 현속보판에 주먹같은 글을 써나간다.

과대시간 1시간을 앞두고 증산목표 돌파!

모두의 얼굴마다엔 혁명의 수도 평양의 불빛을 지켜선 수호자의 긍지가 비껴흐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생산돌격전을 벌릴 때 반드시 막장이 일어난다는것을 확신케 하는 채탄막장의 승결이다.

본사기자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형분탄광의 지하막장에서 비약이 일어났고있다.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으로 높아졌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경영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는데 있다.

탄광에서 새로 갱내IP전화통신사체계를 도입한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예측할수 없는 정황을 기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탄광들의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현대화하는것은 석탄생산을 높이는

현대적인 지휘통신체계를 확립

형분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에서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면 탄광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갱내IP전화통신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지난해 어느날, 당조직의 지도 밑에 지배인은 기술발전과정을 비롯한 기술일군들과 탄광정보통신 장수정동무에게 갱내IP전화통신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이 사업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장수정동무는 중앙의 이름있는 대학의 졸업생도 아니고 정보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전문가도 아니었다.

지배인이 믿은것은 그의 남다른 진취성과 탐구열이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형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그에게 지배인은 주변의 탄광들에서 해보지 못한 IP전화통신체계의 우월성에 대해 하나하

현대적인 지휘통신체계를 확립

나갈수 있는 자질도 갖추게 되었다.

지형전화와 함께 영상전화, 전화회의뿐만 아니라 상태감시, 단속번호, 방송, 상태통지 등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이 통신체계의 도입은 생산공정에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조직, 자체보장 등 기업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물론 막장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정황처리가 종전에 비해 2배이상으로 빨라지게 되었다.

결과 석탄생산량은 부쩍 늘어 나게 되었다.

인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며 과학기술력량은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갱내IP전화통신체계를 도입을 통하여 우리는 이 탄광일군들이 인재중시를 탄광의 오늘날이라 먼 앞날의 발전까지 결정짓는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얼마나 큰 공을 들여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은을 내는 판성식적재운반설비

2.8직동청년탄광 9개에서

간히 크고 구조도 복잡할것으로 짐작했는데 전혀 생각밖이다. 전동기 하나에 감속기 그리고 수십m구간을 직선으로 연결된 조구들이 운반설비의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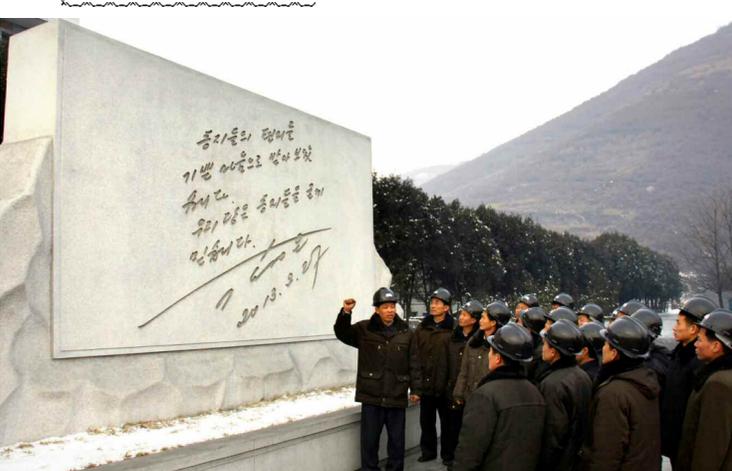
이전시기 막장들에서 리용하던 사출콘베어운영때에는 여러명의 인원이 있어야 했는데 설비결에는 운전공 한명만이 있으면 된다. 감명만동무가 단추를 누르면 편제조구는 체를 치듯 진동한다. 그러면 전진막장과 붐피막장에서 동시에 내려오는 석탄이 판성의 원리에 따라 앞으로 밀리면서 탄차가 옮겨진다. 전진과 붐피막장에서 나오는

은을 내는 판성식적재운반설비

간히 크고 구조도 복잡할것으로 짐작했는데 전혀 생각밖이다. 전동기 하나에 감속기 그리고 수십m구간을 직선으로 연결된 조구들이 운반설비의 전부이다.

이전시기 막장들에서 리용하던 사출콘베어운영때에는 여러명의 인원이 있어야 했는데 설비결에는 운전공 한명만이 있으면 된다. 감명만동무가 단추를 누르면 편제조구는 체를 치듯 진동한다. 그러면 전진막장과 붐피막장에서 동시에 내려오는 석탄이 판성의 원리에 따라 앞으로 밀리면서 탄차가 옮겨진다. 전진과 붐피막장에서 나오는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내려치는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당중앙을 석탄증산으로 결사옹위할 총정의 맹세로 가슴끓인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천성청년탄광에서-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일으킬 열의 안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석탄생산을 늘여간다.



탄부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겨울철에도 신선한 남새를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형대탄광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조선 인민군 지휘성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7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과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담례하시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뒤흠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또한 전승기념관 《승리》상 앞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정규무력건설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이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절세위인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이

켜보았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수여하신 우리 나라의 첫 기관단총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제작하신 조선인민군의 첫 군기와 정규무력건설시기의 각 군종 군복들을 보면서 그들은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라운드 경모의 정으로 가슴뜨겁게 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에 화환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7돐을 맞으며 인민무력부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이 8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인민무력부의 명의로 된 화환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화환의 맹기에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력사들에게 영광이여, 근로자들이 8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에 화환을 진정하였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야 할 력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를 돌아보았다.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은 로학자들

어머니다움의 품속에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지식인들의 영예와 행복은 끝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든번째 생일을 맞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원사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조덕희와 교수 박사인 교원 하계경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다.

에서 태어난 조덕희는 해방후 어머니수령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운 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수십년간 교육과학연구사업에 지체와 열정을 다 바쳤다. 이 나날에 그는 여러 전공과목을 개척하고 수십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수많은 학위학적소유자들을 키워냈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후대 교육사업에 한생을 성실하게 바친 하계경도 당의 품속에서 인생의 값높은 생을 누

렸다. 해방전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자기를 대학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는 수십년간 교육자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술인재육성에 깨끗한 맘을 바쳤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조덕희와 하계경은,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필지

저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사람도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광산에서 일하던 중 뜻밖의 일로 몸을 다치고 침상에 누워있을뿐입니다. 그런 저와 가정을 위해 오랜 기간 친척들의 정을 부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전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저의 집으로 뜻밖에도 광산의 지배인동지와 초급당비서동지를 비롯한 일군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며 병상대를 하나하나로 해하고 치료대책도 세워주었습니다.

뜨거운 정애 목이 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저의 가족은 번듯하게 일떠선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안 일지만 광산의 일군들은 저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와 새 집을 지어줄 방도를 구체적으로 토의한 후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이불장을 비롯한 가구들과 부엌새끼까지 갖추어진 새 집에 들어서며 저도, 저의 부모도 눈물을 적시었습니다. 그후에도 광산의 일군들과 그 안락들은 성의껏 마련한 귀한 약제와 영양식품을 안고 저주저를 찾아와 따뜻이 고부해주고 있었습니다.

목이 맵니다

일군들뿐이 아닙니다. 광산의 많은 로동자들과 그들의 아내들도 때없이 저의 집을 찾아와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어찌 한두마디의 글로 다 적을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저와 한심처럼 어울리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볼 때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그들의 정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려곤 합니다. 성천군 입포리 32인민반 김철민

쁠스까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쁠스까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쁠스까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 무력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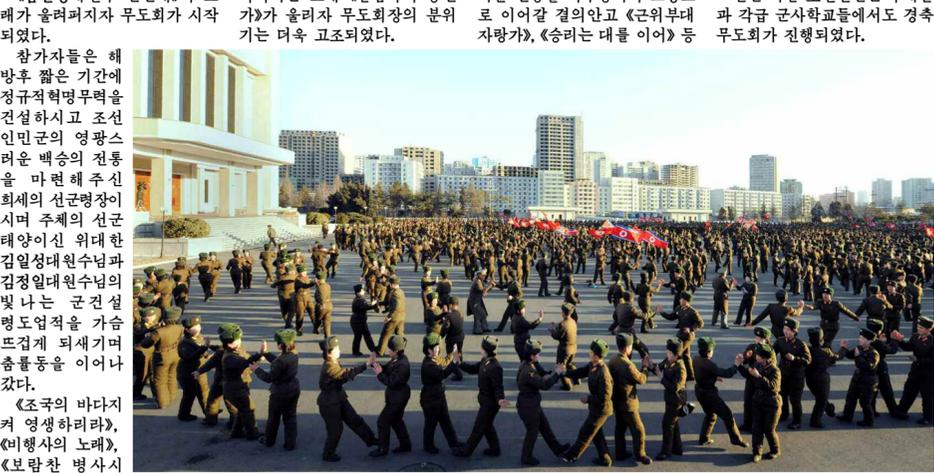
경축 무도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7돐을 경축하는 인민무력부 무도회가 8일 진행되었다. 무도회는 주체의 혁명무력 건설사에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2월 8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커다란 환희와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시고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백승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회색의 선군명장이시며 주체의 선군대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군건설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춤물들을 이어나갔다.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비행사의 노래》, 《보람찬 병사시절》을 비롯한 노래들에 맞추어 참가자들은 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며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총대와 함께 청춘을 빛내어가는 긍지와 희열이 어려 있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단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맥박치는 노래 《밀림속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비행사의 노래》, 《보람찬 병사시절》을 비롯한 노래들에 맞추어 참가자들은 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며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총대와 함께 청춘을 빛내어가는 긍지와 희열이 어려 있었다.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취주악 및 대렬행진 진행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총대를 빛내어주시는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취주악선율에 담았을 듯이 구가하였다.

이 대렬행진이 진행되었다. 행진총대들은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발걸음》의 노래에 맞추어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속해나갈 맹세도들이 광장으로 쏘

썩하게 들어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명령한 내리니 새 단면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 우리 인민의 백년수적인 날강도미제와 총칼을 하고야말 열혈청년들의 철석같은 신념의 분출인양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등의 노래소리가 2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쳤다.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약동하는 행진대오를 바라보는 수도 시민들의 얼굴마다에는 미제개세야무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핵전쟁연습행동에 광분해도 혁명의 수뇌부와 선군대원수의 혼연일체가 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최정예군인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라는 확신이 어려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부문을 도와주는 사업에서 도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원산사범대학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의 물질기술적적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고 교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부도의 심정으로 돌봐주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이 교

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부문을 도와주는 사업에서 도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원산사범대학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의 물질기술적적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고 교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부도의 심정으로 돌봐주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이 교

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부문을 도와주는 사업에서 도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원산사범대학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의 물질기술적적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고 교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부도의 심정으로 돌봐주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이 교

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부문을 도와주는 사업에서 도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원산사범대학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의 물질기술적적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고 교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부도의 심정으로 돌봐주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이 교

순결한 도덕의리심의 발현

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이날에 그는 구강치료에서 실천적의의가 있는 10여건의 소문들을 집필하였고 보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적지 않은 창의고안을 하였다. 이러한 그를 두고 구강병예방과 방광 리형성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한결같이 무서운 정열가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청진기 주진단, 휴식날이 아니라도 보철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구강병예방원 당조직요

로 많은 환자들이 감사편지를 보내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언젠가 리찬동무는 한 정열로병의 보철을 담당할적이 있었다. 보철을 잘해주자면 정열로병을 예방원으로 여러번 불러야 하였다. (정열로병들은 조국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야 하는 혁명선배들이 아닌가. 나이많은 정열로병을 예방원으로 오라고 할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그는 스스로 그만 아니 다른 정열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찾아가 이동구강치료와 보철을 해주는 일을 하리라 결심하였다. 예방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치료기재와 보철자재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리찬동무를 비롯하여 멀리 이동치료를 다닌다는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결별날, 휴식날이 아니라도 보철을 위해 순결한 노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하기에 리찬동무와 이곳 보진 일군들의 성의있는 치료로 받은 청진시의 많은 정열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주민들은 이같이 말할 수 없다. 리찬동무는 비롯한 도구강병 예방원의 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의 아름다움 소행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다. 오늘날 리찬동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선군시대 보진 정열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한 이동구강치료와 보철을 위해 순결한 노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